

3차 격리에도 남아도는 쌀... '헐값 밀어내기' 우려

정부 10만t 추가 매입 결정... '최저가 낙찰제' 고수 쌀값 폭락 지속 전남 전년비 재고 증가율 200%...매입가격 6만3863원 최저 기록

정부가 2021년산 쌀 10만t을 추가 매입해 시장 격리하기로 했지만, 올해 조생종 벼 출하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쌀 재고 소진을 위한 '헐값 밀어내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벼 이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벼 재배면적 감소세가 둔화하고 올해도 풍년 농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쌀 재고 소진을 위해 1~2차 시장 격리에 이어 10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해 공고하고 다음 달 말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가 8월 말까지 시장 격리 쌀 매입을 마무리하려는 건 올해 추석이 이른 탓(9월10일)에 조생

종 벼 출하가 8월 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2년산 벼 재배면적은 72만72만2000ha로, 전년(73만3000ha)보다 1.4~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재배면적(15만5435ha)의 4.3%에 해당하는 6698ha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는 있지만, 지난해부터 '논 타작물 재배' 국비 지원이 끝나고 올해 모 생육상황이 평년보다 좋은 탓에 쌀 이 대로 쌀인 쌀 재고가 완만하게 소진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지난해부터 종료하는 대신 벼 재배면적 1ha 감축 때 공공비

축미 배정물량(40kg 250포)을 더 주는 '2022년산 쌀 적정 생산대책'을 세웠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마지막 해인 지난 2020년에는 국비 80%·지방비 20% 비율로 전남 187억원 등 전국 680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남지역 농협 쌀(정곡) 재고는 13만7000t으로, 지난해 같은 달(4만2000t)의 3.3배(226.2% ↑) 수준이다.

전국 쌀 생산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전남은 재고량도 8개 도(道) 가운데 가장 많다.

전국 농협 재고는 지난해 말 기준 61만3000t으로, 전년(31만4000t)보다 95.2%(29만9000t)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0%'를 넘긴 지역은 전남 뿐이다.

이처럼 전남 곳곳 쌀 창고가 가득 찬 상태에서 소비 부진으로 인해 쌀 매출은 '두 자릿수' 감소했다.

6월 말 기준 전남지역 농협 쌀(조곡 포함) 매출액은 3128억원(판매량 13만7000t)으로, 전년 같은 기간 3794억원(14만3000t)에 비해 17.6%(-

666억원) 줄었다.

지난 25일 기준 도정된 쌀(정곡) 80kg 가격은 18만860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22만3484원)에 비해 19.1%(-4만2624원) 폭락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17만8220원)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15%나 늘어나면서 6년 만의 풍년을 맞은 전남지역 쌀값 하락 추세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전남지역 수확기 벼 40kg당 매입가격은 6만3863원으로, 전국 평균(6만7868원)보다 3823원 낮았고 8개 도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전남 수매가는 6만9271원으로, 최근 5년 내 최고를 기록했으며, 경북·경남·충북·충남보다 높았다.

게다가 올해 2월 치러진 '2021년산 시장격리곡 경쟁입찰'에서 전남지역 평균 낙찰가는 6만3853원(40kg 조곡)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6만8000~6만9000원에 턱없이 못 미쳤다.

정부는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는 대신 쌀 과잉 생

산량을 매입하는 시장격리를 올해 처음 단행했다.

문제는 예정 입찰가(비공개 원칙) 이하로 응찰해야 우선 낙찰받게 되는 '최저가격 낙찰제(역공매)' 방식으로 운영한 탓에 전남지역 배정물량(5만5723t)의 82.0%에 불과한 4만5682t만 낙찰되고 나머지 1만41t은 유찰되고 말았다.

'농가 물량 우선 매입'을 내세웠음에도 전남 낙찰 물량 가운데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10.2%로, 낙찰률 역시 8.4%에 불과했다.

쌀값 하락 추세가 잡히지 않자 5월 치러진 2차 시장격리 입찰에서도 가격 결정 방식을 역공매로 고수한 탓에 평균 낙찰가는 6만977원으로 더 떨어졌다.

가격을 떨어뜨린 탓에 2차 때는 전남 배정물량 3만3046t의 100%가 낙찰됐다.

농민 측은 추가 시장 격리 결정에 대해 반기면서도 요건 충족 때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며 3차 시장격리에선 반드시 쌀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도, 태국·싱가포르서 222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

시장개척단 15개사 참여 태국 5건·싱가포르 2건 등

전남도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2일~6일 6일간 태국과 싱가포르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현지의 뜨거운 반응으로 222만 달러 수출계약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완화로 인적 교류가 원활해져 도내 수출기업의 대면 마케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태국·싱가포르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도내 농수산물기업 11개사와 화장품 등 공산품 4개사가 참여했다.

그 결과 6개 참가기업이 총 7건 222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했다. 지난 6월 28일 태국 수출상담회에서 5개사가 5건 210만 달러를, 6월 30일 싱가포르 수출상담회에서 2개사 2건 12만 달러의 성과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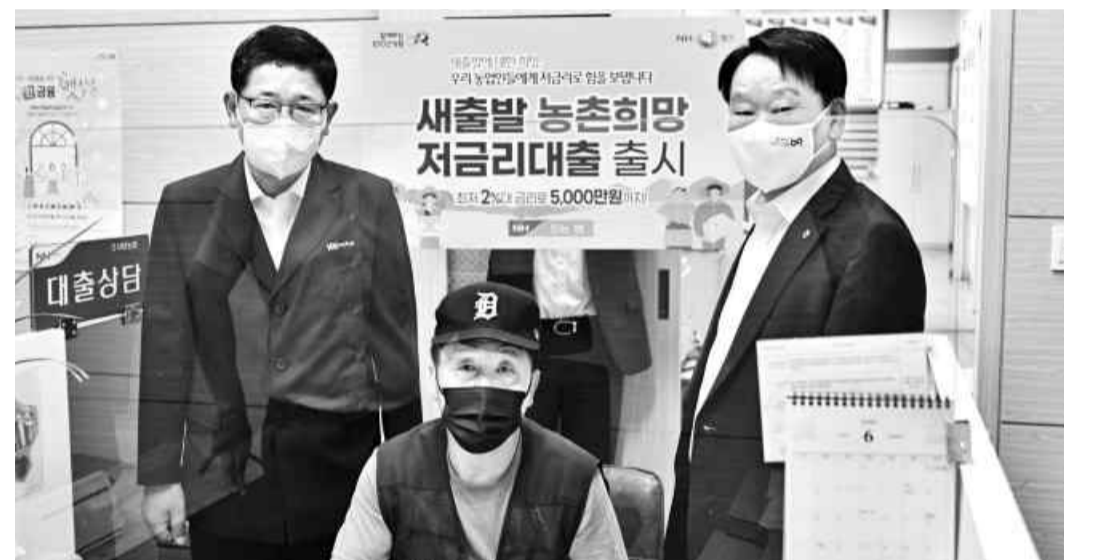
태국에선 (주)에인티엔지 알로에음료, 해남고구마협동조합 고구마말랭이, 골든힐 멸치·해조류, 맑고맑고따뜻한협동조합 유아음료, 레오바이오 혈당측정기 등이 수출 기회를 잡았다. 싱가포르에선 다시마전복수산물 전복, 해남고구마협동조합 고구마 등이 계약을 했다. 이곳에선 2021년 장보고 한상 어워드 대상 수상한 정영수 CJ그룹 글로벌 경영고문이 해남고구마협동조합과 개별 미팅을 갖고 2만 달러 상당 해남고구마 900상자를 선뜻 구입해 전남 제품을 홍보하는 훈훈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1대 1 수출상담을 진행해 2천 494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태국·싱가포르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였다. 제품 종류별로 록바이오택, ㈜메사코사, ㈜이노플렉스가 화장품류, 북하북식품사업단(주)이 젓갈류, 네이처퓨어코리아가 건강기능식품을, ㈜현농프래쉬, 좋은영농조합법인, ㈜위더스에프앤비, 레인보우팜(주)이 식품류를 출품했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 완화 이후 태국과 싱가포르의 민간소비가 개선돼 지난 5월까지 전남도 누적 수출액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출계약이 실제 수출로 이어져 수출 상승세를 지속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업인 금리 부담 덜다... 2%대 저금리대출 출시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고성신·왼쪽)와 서창농협(조합장 김명열·오른쪽)이 지난 1일 농업인 조합원과 '새출발 농촌희망 저금리대출' 출시 기념 가입행사를 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최대 5000만원 영농자금 지원

농협 지역본부들이 이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최저 2%대 금리가 적용되는 '새출발 농촌희망 저금리대출'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일 목포농협과 서창농협에서 잇달아 금융상품 가입 행사를 열었다.

'새출발 농촌희망 저금리대출'은 금리 상승기 농업인의 금융비용 절감 및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영농자금 대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농축협 조합원, 청년창업농,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도는 최대 5000만원, 최저 2%대 금리(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기간은 3년이며, 운전자

금 용도로 신규 대출 및 기존 영농자금의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1조원 한도로 한시 판매되는 기획상품으로, 한도 소진 때 판매 종료된다.

농협은 기존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인상도 예상되자 저금리로 영농자금을 지원해 농업인의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 이 상품을 통해 농업인 2만명을 대상으로 총 450억원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농협 측은 설명했다.

고성신 광주본부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코로나19의 끝자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협이 앞장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7월에도 '금배추'... 도매가 지난해보다 91% 상승

농촌경제연구원 예측 양배추 21%·무 28% ↑

올해 불철 거름과 재배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이달 배추 가격이 작년의 2배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의 '농업관측업권채소 7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배추 도매가격은 10kg 기준 1만5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90.9%, 평년보다는 39.0% 각각 상승한 것이다. 연구원은 8월에도 배

추 출하량이 작년보다 7.9% 감소하면서 가격이 비싸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에도 배추 도매가격은 10kg당 8690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5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씨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고, 재배면적 자체가 감소하면서 배추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지난달 상승 10kg당 8900원이던 배추 도매가격은 봄배추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중순에는 8010원으로 떨어졌으나 고온과 장마 등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 하순에는 9070원으로 올랐다.

한편 연구원은 출하량 감소에 따라 이달 당근 가격도 20kg 내외 기준 3만7000원으로 예상돼 작년

동월과 비교해 94.7%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양배추 도매가격은 8kg 내외 기준 6000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21.4% 오르고, 무 도매가격은 20kg 내외 기준 1만4000으로 27.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승선문의	예약센터
삼도해운, 플래티늄	061-834-3434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